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지구평화헌장

(일본발 모델안 2020. 4. 25)

- 지구 시대의 관점으로 9 조 이념의 발전을 -

대우주의 별의 하나, 이 지구 상에서 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우리는 언제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I 전문

- 1) 인류의 가장 큰 꿈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없애는 것
- 2) 지구 시대의 관점에서
- 3) 일본으로부터의 메시지

II-1 이념과 원리

- 1) 비전쟁
- 2) 비무장, 비군사화
- 3) 비핵
- 4) 비폭력
- 5)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

II-2 인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 1) 평화의 문화와 교육
- 2) 국제법의 발전과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

III 지구 평화 헌장을 뒷받침하는 인간 이해

9 조 지구헌장의 모임

이 메일 9.globalpeace@gmail.com

HP <https://www.9peacecharter.org>

I 전문

1) 인류의 가장 큰 꿈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없애는 것

과거에 전쟁은 정치의 연장으로 적과 아군의 관계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며 문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통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이익 대부분은 지배자층이 독점하고, 전쟁의 희생은 민중 특히 약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평화 희구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라면 인간 자신이 그것을 없애지 못할 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생각을 한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희구와 전쟁을 근절하려는 노력들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의 처절한 지상전과 핵에 의한 피해를 체험한 인류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파리부전조약과 유엔헌장을 만들었고,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평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악이자 위법행위로 보고,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물어가며 평화를 둘도 없는 소중한 가치로 희구해 왔습니다. 그러한 꿈은 이념이 되었고, 이제 그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 지구 시대의 관점에서

전쟁은 인간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고 지구 환경을 파괴합니다. 특히 핵무기는 지구상의 생명 소멸을 예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그러한 인식을 공유하며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 년부터를 인류와 지구 재발견의 시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지구시대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와 바이러스 재난의 세계적 확대는 우리들이 인류 구성원의 한사람이라는 생각을 전 지구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나아가 핵 위협과 마찬가지로 생화학 무기 사용과 그 연구 및 개발의 잔혹성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구시대는 두 가지 글로벌리제이션, 즉 핵 위협, 지구 환경 파괴, 경제 격차의 글로벌한 확대인가? 아니면 평화, 인권, 공생(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의 글로벌한 공유인가?라는 둘의 투쟁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편적 인권을 비롯해 평화적 생존권과 환경에 대한 권리 사상이 생겨나면서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은 물론 자연과 인간의 상생에 관한 사상이 구축되어왔습니다. 환경에 대한 권리 중에는 탈원자력 발전소의 관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과 핵무기 금지 조약도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성 평등과 아동 권리 사상이 차세대 권리 및 지구시민 권리라는 새로운 연대적 관점과 아우러져 심화되어온 점도 중요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 19의 팬데믹 위기에 전쟁 같은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세계 빈곤층 구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엔 헌장의 정신과 일본국 헌법의 이념을 지구 시대의 관점으로 확대하여 나와 너, 우리들이라는 의식을 세계 사람들과 인류로 확장시켜나가며, 평화와 행복을 희구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과 힘을 모아 비전쟁, 비무장, 비핵, 비폭력 세계,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실현되는 세계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인류와 지구를 지키고, 전 세계인들이 이 지구를 나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인류의 사명입니다.

3) 일본으로부터의 메시지

패전과 폐허 속에서 탄생한 일본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명기하고, 9 조에서 비전쟁과 비무장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스스로에 대한 맹세이자 세계를 향한 국제 공약입니다.

일본국 헌법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무도한 침략과 가해에 대한 반성, 그리고 무차별 폭격과 원폭 피해를 경험한 일본 국민들의 전쟁 혐오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비전쟁의 맹세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이는 칸트의 영구 평화 사상으로 이어지며, 제 1 차 세계대전 후 전쟁을 위법으로 보는 운동과 부전 조약, 나아가 유엔헌장의 이념과도 연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지구평화헌장 제안은 세계 선인들의 염원을 이어나가며, 그것을 지구시대라는 관점에서 더욱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70 여 년간 끊임없는 세계 분쟁과 일본 국내외 개헌 압력 속에서도 평화헌법을 지키며 전쟁에서 일본인이 한 사람도 죽고 죽이는 일이 없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고, 이 평화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평화를 소망하는 목소리가 세계로 퍼져나가 9 조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인식도 깊어지면서 이제 9 조는 세계의 보배라는 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운동은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헌법의 전문과 9 조를 다시 읽어가며 그 역사적, 현대적 의의를 파악하고, 인류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상 변혁의 운동이며 세계와 이어가는 연대 운동을 통해 그 사상을 지구평화헌장으로 결정화하려는 것입니다.

II-1 이념과 원리

우리들은 전쟁에 반대하며 비무장, 비핵, 비폭력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고 인류와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의 사명입니다.

1) 비전쟁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주요 원인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영토나 시장 그리고 자원의 쟁탈과 같은 거대한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다툼에 있으며, 그 배후에는 군사 산업, 군산 복합체, 죽음의 상인 등이 존재합니다.

권력욕과 지배욕이 군사력 경쟁을 낳고 긴장을 조성하며, 공격과 복수의 연쇄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인류는 전쟁의 잔혹성을 배우고 전쟁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어 전쟁은 악이며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부전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전쟁이어야 합니다. 분쟁의 해결은 유엔의 중재와 평화를 원하는 민중(시민)의 지지를 받는 대화를 통한 외교 교섭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 전쟁은 사람을 광분하게 합니다. 인간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 전쟁은 살인입니다. 서로 죽입니다.
- 전쟁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 전쟁은 항상 정의라는 이름 하에 평화를 위해 혹은 자위를 위해라는 구실로 행해집니다.
- 전쟁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 내전도 전쟁입니다. 대 테러전쟁도 전쟁입니다.
-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입니다.
- 어떠한 무력 행사도 무력에 의한 위협도 허용되어선 안됩니다. 비록 인도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무력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이제 전쟁은 위법이요, 범죄요, 순리에 반하고 인도에 반하는 절대악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비무장과 비군사화

국가가 군대를 갖거나 무장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방위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게는 무력에 의한 위협이 됩니다. 또한 군비 증강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군비를 철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완전 군축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군사력에 의한 전쟁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 군축은 일본의 헌법 9 조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과 유네스코 같은 국제 사회에서도 국제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 군대는 해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군대를 폐지하는 것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군대라는 존재가 다른 나라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군비 확대와 군사 동맹에 의한 억지력은 오히려 전쟁 위기나 새로운 군비 확장 경쟁을 초래합니다.
-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사 충돌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외국군의 기지도 주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 군사 기지를 만드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군사 동맹은 맺지 않고 평화 우호 관계를 맺어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무기는 물론 모든 무기의 연구, 개발, 제조, 보유, 수출입을 금지합니다.
- 군사비의 증대, 산·군·학의 협동, 군사 우선의 미디어와 같은 모든 군사화에 반대합니다.
- 완전한 군축을 목표로 각국 군대는 군사 조직에서 경찰 조직으로, 그리고 재해 구조나 인도적인 원조를 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군대가 있는 나라는 국외에서의 무력 행사는 물론 위협도 해서는 안됩니다.

3) 비핵

핵(nuclear)은 인류나 지구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핵의 군사 이용인 핵무기뿐만 아니라 그 민생 이용인 원자력 발전도 인류와 모든 생명체의 생존과 양립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핵은 비전쟁, 비무장,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 핵무기는 생화학 무기와 마찬가지로 인류사상 최악의 잔학하고 비인도적인 대량 파괴와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 핵무기 보유국의 핵 억제력 정책은 억지력 경쟁을 낳고 위기를 고조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비핵 보유국에 대한 공포에 의한 지배가 될 수 있습니다.
- 핵무기 금지 조약은 인류의 염원입니다.
- 핵실험이나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방사능 오염은 반영구적인 것입니다.
-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물은 핵병기 원료입니다. 핵 폐기물은 아직도 안전하게 버릴 곳이 없습니다.
- 핵폐기물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인체를 병들게 합니다.

4) 비폭력

폭력은 평화롭게 살아야 할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상반됩니다. 폭력은 인간의 신체와 감성 나아가 이성과 존엄을 훼손하고 파괴하며,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의 실현을 방해합니다.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모든 폭력에 저항하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폭력을 폭력으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폭력의 연쇄를 낳을 뿐입니다. 폭력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같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전쟁은 인간과 지구 환경에 대한 최대의 폭력입니다.
- 핵전쟁은 인간과 지구 환경에 대한 최대의 폭력입니다.
- 핵무기에 의한 위협으로 전쟁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핵확산 경쟁과 핵전쟁의 위기를 낳을 뿐입니다.
- 빈곤과 격차와 차별로 나타나는 사회의 억압적 구조도 평화롭게 살아야 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과 시민 생활을 가로막는 커다란 폭력입니다.
- 그러한 구조적 폭력은 국제적인 테러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 미국으로 대표되는 총 사회는 무차별 대량 살인을 포함한 많은 아이들과 시민에 대한 심각한 폭력을 낳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총기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전쟁을 미화하고 선동하는 폭력의 문화를 대신해 평화교육과 평화의 문화로 아이들을 키우고 시민 연대를 격려해가야 합니다.
- 가정, 학교, 직장, 공공 장소 등 일상과 비일상을 막론하고 아이들과 시민 삶의 모든 장면으로부터 폭력을 없애야 합니다.
- 일체의 전쟁과 함께 사형을 포함한 국가의 폭력, 구조적 폭력, 시민 생활의 폭력을 없애는 적극적 평화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지구상에 영속적이고 진정한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비폭력과 적극적 평화의

사상과 행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5) 평화롭게 살 권리

비전쟁, 비무장, 비핵, 비폭력 사상은 국가와 국가의 평화로운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결핍에 시달리지 않는 상태와 안전한 지구 환경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느끼고, 고통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는 생명과 생존, 개인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입니다.
-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는 모든 인권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입니다.
- 평화는 결코 단순한 이념이나 정책의 하나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는 국가와 국제 기관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 정책, 예산 및 국제 합의는 모두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국가나 국제 기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는 세계가 전쟁의 공포, 폭력,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어, 세계 각국과 시민이 지구 환경 변화에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 세계가 평화롭지 않으면 한 나라의 평화도 없고, 나라가 평화롭지 않으면 한사람의 평화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없다면 국가와 세계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에 걸맞는 인간관, 사회관, 인류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II-2 인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 평화의 문화와 교육

비전쟁, 비무장, 비핵, 비폭력의 국가와 국제 사회를 구축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며, 미래 세대의 권리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교육과 평화 문화 창조가 필수적입니다. 개개인의 사람들이 이를 실현하는 일꾼이며, 그 지적 협동과 정신적 연대 위에서 평화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는 평화 교육을 통해 뿌리내리고 평화의 문화 속에서 풍요로워집니다.
- 평화의 문화란 전쟁과 폭력의 문화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것으로, 인간성이 풍부한 문화를 말합니다.
- 평화의 문화는 지구 시민들이 글로벌한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비폭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며, 인권과 공정성 속에서 살아가며 문화적 다양성을 서로 이해하고 지구와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 관심을 기울일 때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 평화의 문화로 이어지는 가치관, 태도, 행동 양식은 가족과 지역 생활을 통해 육성되는 동시에 학교의 평화교육에 의해 획득되는 것입니다.
- 평화교육은 평화로운 국가와 평화로운 국제 사회를 짊어질 사람을 길러냅니다. 그렇기에 세계의 아이들과 교사에게는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지구 시대의 평화교육은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인류와 지구를 재발견하고, 지구 시대에 전쟁이 가지는 위법성을 학습함으로써 인권과 사회정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를 심화시켜나가며 평화에 대한 확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 평화학습의 기회는 모든 장소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 평화교육의 핵심은 일상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폭력을 미워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자각하고, 평화의 문화를 사랑하여 그것을 만들어가는 주체를 기르는 것입니다.

2) 국제법의 발전과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

비전쟁, 비무장, 비핵, 비폭력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관계의 문제입니다. 국제법은 국가간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국가의 의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경을 넘어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비전쟁, 비무장, 비핵, 비폭력의 국제 질서 형성과 연결됩니다.

-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유엔헌장을 토대로 좁은 의미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무력에

의한 위협과 무력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제 분쟁을 대화와 법에 근거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유엔의 설립 목적으로 되돌아가 유엔의 이름을 빌린 군사 개입을 폐지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분쟁 해결 기관의 역할을 강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 차원의 움직임과 함께 지역 차원의 비핵화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북아도 비핵 지대를 설정하여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 전간기(Interwar period)에 체결된 부전 조약은 전쟁의 위법성을 폭로하는 시민운동이 가져온 성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어린이와 장애인의 권리 실현, 완전 군축과 항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시민 운동이 국제법 규범으로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그것은 유엔의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과 핵무기 금지 조약을 성립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 각국 정부에게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실현을 도모할 것을 촉구합니다.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을 조약으로 만들고 핵무기 금지 조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합니다.
- 우리들의 지구평화현장도 지금까지 언급한 비전쟁, 비무장, 비핵, 비폭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을 지향하는 국제 시민 운동의 하나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Ⅲ 지구 평화 현장을 뒷받침하는 인간 이해

우리들의 현장을 뒷받침하는 이념은 앞에서 말한 역사 인식과 인간 이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현장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쟁, 비무장, 비핵, 비폭력의 사상은 현대를 지구시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걸맞는 인간 이해와 가치관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지구시대는 평화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권리,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권리, 미래세대의 권리, 그리고 상생의 사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과 신의를 바탕으로 한 신뢰를 축으로 다양성과 관용, 사상과 신조의 자유,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폭력에 대한 부정, 인간적 감성과 열린 사고, 보편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성을 존중하는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열린 정신적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사를 통해 인류가 축적해온 굳건한 확신입니다.

이러한 지구시대의 가치 의식과 다양성의 존중, 특히 개인의 존엄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무엇보다도 생활과 교육에서 그것들이 부정되는 상황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가운데 학습되고 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신자유주의나 금융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글로벌리즘과는 다른 길, 즉 인류가 공생을 위한 지구시대의 가치들을 지구 전체로 확산시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을 중심에 두고 국가와 지역(region)이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대해가는 과정을 소중히 하는 국제화(internationalism)로, 이는 새로운 상생과 연대의 글로벌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는 모든 사람의 행복(well-being)과 존엄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빈곤, 차별,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성장 신화와 핵의 안전 신화로부터도 해방되는 인간적이며 자유로운 새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 고길희)